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송호빈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화순 박순철

완도군,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 4개소 지정·운영

군립·금일·노화·약산 도서관 치매 관련 도서 등 비치



완도군보건의료원은 17일 군립도서관을 비롯한 금일, 노화 공공도서관과 약산진달래 작은도서관을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주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치매 정보 허브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4개소 도서관은 자료실 내에 치매 관련 도서 120권을 제공받아 별도 코너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치매 도서 및 자료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화순군, 건강한 부모 튼튼한 아기교실 운영



화순군은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한 부모 튼튼한 아기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기교실은 군 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6월 4일부터 총 4차례(매주 화요일) 운영한다. 화순에 거주하는 임신부나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 접수는 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모자보건실(061-379-5355)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임신과 출산에 막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예비 부모들이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강진군, 범씨 파종 자동화 기술 '호평'

파종된 모판 상자 3~5장까지 자동 적재하여 이송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쌀 생산 구조의 변화로 농가 경영의 악화를 해소하고 자동화 기술을 통한 고령 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일손 절감 위해 올해 '범씨 파종 자동화 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첫 추진하였다.

관 파종 작업 시기에는 노동력 수요가 집중되어 필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농촌인구의 고령화 여성화로 모판 파종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질감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편농(便農) 관련된 시범사업으로 농업인에게 환영을 받는 일손 절감 기술이다. 범씨 파종 자동화 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한 강승수 농가는 "모판 파종시 작업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노동력이 거의 대부분의 경영비를 차지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시범사업 기술을 적용해 모판 작업을 해보니 농번기 인력 확보 해소와 작업시간도 절감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주변농가들도 큰 관심을 보인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강진=김영일 기자

곡성군, 25일부터 택시 요금 인상

곡성군은 지난 6년 동안 동결됐던 택시 요금이 오는 25일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곡성군 불가채택위원회'는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15.46%를 기준보다 낮은 12.57%의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곡성군은 지난 6년 동안 동결됐던 택시 요금이 오는 25일부터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46m당 160원에서 134m당 16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시간운임(15km/h 이하 운행시)은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조정된다.

군은 이번 인상이 적용되는 5월 25일부터 택시 미터기 수리 검정을 차례로 실시하고 수리검정이 미완료된 택시는 요금 조건표를 부착해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전기사 처우 개선은 물론 택시 이용자들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택시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곡성=김평휘 기자



장흥군, 청년발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장흥군은 지난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청년의 다양한 의견수렴하기 위한 소통창구로 '청년발전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지난 2월 일 자리, 농어업, 문화, 복지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청년발전협의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40년에 전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마이너스 0.39%로 감소할 전망이다. 전남은 전국 광역시 중에서 인구증감률이 마이너스 0.70%로 가장 크게 감소 등 지역별 인구격차가 더욱 심화될 실정이다.

여수시, '홍국상가 세일 페스타'...최대 60% 할인. 오는 25일 여수시 시전동 홍국상가에 가면 다채로운 거리 공연을 즐기며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여수시는 25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홍국상가 거리 일원에서 청년상인 어울림 프로젝트 '홍국상가 세일 페스타'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행사장에서는 동화마켓, 제조공연, 게릴라 미술쇼, 경품 이벤트 등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다. 먼저 세일페스타 구역에서는 홍국상가 50여 개 상점이 의류, 액세서리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동화마켓은 프리마켓 형식으로 지역 청년이 제작한 수공예품 등 다양한 상품을 방문객에게 선보인다. 공연존에서는 7개 음악팀이 재즈, 블루스 공연을 펼치며 낭만을 선사한다. 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진행되는 게릴라 미술쇼와 아동미술쇼는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한다.

여수=송기홍 기자

영암군, 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



영암군은 지난 21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에서 토양관리, 재배기술, 유통·마케팅 등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의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해주는 현장 컨설팅 교육이다. 이번에 진행된 교육은 대봉감, 단감을 재배하고 있는 50여명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토양관리와 비료 등 과수 영암관리의 모든 것 이라는 주제로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 현해남 교수를 초빙하여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해남 교수의 강의를 꼭 한번 듣고 싶었는데 오늘 컨설팅을 받고 나니 새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양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욱 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영암군 대봉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우, 토마토, 멜론, 무화과 등 다양한 작목에서 현장컨설팅을 추진하여 농가들의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